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

- <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구선정**

<차례>

1. 서론
2. 죄벌(罪罰)의 양상
 - 1) 불고이취((不告而娶)한 죄-부의 강력한 체벌
 - 2) 아내를 믿지 못한 죄-가문에서의 소외와 고립
 - 3) 편벽된 애정을 드러낸 죄-아내의 신체·성적 폭력
3. 죄벌(罪罰)로 인한 고통의 이면
 - 1) 애정과 호색에 대한 상반된 인식
 - 2) 이념에 의해 괴물로 전락하는 남성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가문이라는 집단이 그에게 가한 죄벌과 고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부친에 의한 강력한 체벌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몽창은 소월혜와의 혼인 과정에서 불고이취한 죄로 부친으로부터 심각한 체벌을 받는다. 체벌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나가 성혈이 흘러내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되다가 주검이 될 정도로 사경을 헤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부 밖으로 쫓겨난다.

두 번째는 가문에서 소외당하고 고립되는 데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몽창은 아내 소월혜를 의심하면서 부부갈등을 일으킨다. 그런데 아내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이씨 가문으로부터 외면당한다.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만을 고수하는 아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어 아내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몽창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2010-1659-001-3)

** 경희대학교 강사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냉정한 아내, 휘절 루머, 가족들의 부정적 시선은 이몽창을 이부에서 소외시키고 고립되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이게 했다.

세 번째는 아내의 신체·성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몽창은 강압에 의해 혼인이 성사되었다는 것과 아내의 성품이 좋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정실인 소월혜를 향한 변치 않은 마음 때문에 아내 조제염을 거부한다. 그 대가로 조제염으로부터 신체·성적인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 모든 문제가 이몽창의 편벽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몽창이 조제염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묵도하면서도 방관한다.

이렇게 이몽창은 불고이취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편벽된 애정을 보였기 때문에 죄벌을 받았다. 그러나 죄벌 이면에는 한 개인의 자유 애정 의지가 용납될 수 없다는 가부장제 체제의 경도가 숨어 있었다. 인간의 순수한 본능에서 비롯된 애정의 발현이 호색함으로 왜곡되어 가문이라는 집단 의식 앞에서 단죄를 받는 것이다. 소월혜의 과도한 이념은 남성 지배 질서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다시 이몽창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고통을 안겨준다. 이렇게 소월혜는 집단의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집단에 편입하고자 했지만, 이몽창은 자신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채 ‘괴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자유로운 본성과 의지를 포기 혹은 박탈당한 후에야 비로소 가문의 중심부에 서게 된다. 그가 가문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고통 받고 버려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성장은 통념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가 굴절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이라는 집단의 의식 앞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유 애정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이몽창은 매력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완월회맹연>의 정인광이 가부장제 하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숨긴 채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반된다. 이몽창은 호색함으로 불리어 졌지만 아들 이백문처럼 폭력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숙부 이연성처럼 미인에게만 오로지 집착하지도 않았다. 형인 이몽현처럼 이념에 전도되어 융통성 없이 사고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거리낄 것 없는 감정에 충실한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체재 앞에서 유연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서술자는 부부갈등을 팽팽하게 이끌어 가면서도 승자를 가리지는 않았다. 이는 이몽창의 호색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사랑 또한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쌍천기봉>의 작

가는 남성 주인공이 자유 의지와 당대 이념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고뇌하고 갈등하는지를 이몽창의 ‘죄벌’과 고통의 양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주제어 가부장제, 남성, 고통, 시련, 불고이취(不告而娶), 체벌, 고립, 소외, 폭력, 애정(愛情), 호색(好色), 주체, 타자, 괴물, 실성지인.

1. 서론

독자층이 대부분 여성인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는 여성의 의식과 행동을 경계하는 일종의 교훈서와 같은 내용들도 담겨있고, 가부장제 아래서 질곡을 당하는 여성들이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동질감과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남성 지배 질서 속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그려지며, 작품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수난을 겪는다.

그러나 남성인물들도 이 질서 앞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가부장제하의 주체로서 여성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체제에 자신도 속박되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기실 가부장제하에서 어느 누가 구속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미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체제가 부패량이 되어 도리어 자신을 속박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상황도 없을 것이다. 여성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면서 가문 내에서 비교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처럼, 남성도 가문의 수장이 되어야만 가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되지 못한 미완의 남성들 역시 체제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무시당하고 의지를 박탈당하는 등의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들에는 여성인물의 시련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 남성인물을 가해자로만 인식하여 그 내면의 심리적 고통과 내

적 갈등을 깊이 있게 읽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성인물을 속박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던 억압된 규율이 무엇이었는지를 <쌍천기봉>의 남성인물인 ‘이몽창’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이관성의 셋째 아들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작품 서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¹⁾ 그래서 이몽창을 중심으로 하여 부자·부부·군신의 갈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몽창은 ‘영호(英豪) 수발(秀拔)한 호걸’이거나 ‘괴물’·‘실성지인(失性之人)’으로 불리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부정적인 지칭은 주로 부친인 이관성의 입에서 불리었다. 이관성은 아들 이몽창의 호색(好色)함을 늘 경계했다. ‘여자’라는 말만 나와도 무섭게 다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이몽창은 아버지만 보면 땀이 온몸에 젖을 만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자유 애정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부친 이관성과 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불고이취(不告而娶)한 죄로, 아내를 믿지 못한 죄로, 강압에 의해 혼인하게 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로 부모에게 강력한 체벌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아내와 불화하거나 심지어 귀양살이까지 가게 되는 등의 술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몽창은 탕자와 같은 인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의 자유 의지가 권력에 의해 매번 목살당하면서 그에 따른 행동도 빗나갔기 때문에 이몽창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그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여타 남성주인공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최근에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남성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면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소헌성록>에서는 소운성에 주목하여, 반항적이고 오만한 인물이었다던 소운성이 관용적인 인물로

1) <쌍천기봉> 장서각 18권 18책을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성장했다는 논의,²⁾ 엄정한 규율과 잣대로만 살았던 인물들과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이며 감정에 충실한 인물로 성장한 소운성은 영웅호걸적인 가장의 시원이 되었다는 논의 등이 있다.³⁾

<임씨삼대록>에서는 임관홍이 선택한 처사로서의 삶이 그가 감당해야 하는 가문의 부채감(負債感)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 ‘성찰하는 개인’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⁴⁾ 그리고 <완월회맹연>에서는 정인광을 통해 폭력적인 가부장의 가면, 그 이면에는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고통스런 내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⁵⁾ 이들 논의들은 남성주인공들의 내면에 주목하면서 가부장제가 남성인물에게도 작동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게끔 했다는 것을 밝혀낸 데에 의미가 있다.

<쌍천기봉>에 대한 연구는 서지사항의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⁶⁾, <이씨세대록>과의 연작 관계⁷⁾, 기봉류 소설로서의 특성⁸⁾, <삼국지연의>와의 연관 관계⁹⁾, 몽유양식의 의미¹⁰⁾, 장편화 양상¹¹⁾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

-
- 2)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집, 2010, 53~86쪽.
- 3)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정(家長)의 시원(始原)-<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29집, 2010, 153~185쪽.
- 4)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집, 2010, 255~289쪽.
- 5)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집, 2013, 27~64쪽.
- 6) 김기동, 「<쌍천기봉>의 해제」, 『현대문학』 18권, 현대문학사, 1972.
김진세, 「<쌍천기봉>연구」, 『관악어문연구』 1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6.
- 7)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8)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9)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 18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3.

졌다. 특히 장시광은 <쌍천기봉>연작에 대한 논의를 여러 편 발표하고 있는데¹²⁾, 그 중 <쌍천기봉>에 나타나는 여성수난담에 주목한 논문은 여성 수난의 과정을 통해서 가문이나 국가의 권력이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인물도 가문이나 국가의 권력에 의해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 있음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이선형이 성장 담화를 <쌍천기봉>에 적용하여 인물들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중 <쌍천기봉>의 서사 중심에 놓인 이몽창은 자유결혼 의지를 고수하면서 부모와 반목을 형성하다가 혼인하여 처첩·자식과의 갈등을 거쳐 완벽한 아버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¹³⁾ 그러나 이몽창이 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요구한 것과 죄를 씻어 박탈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당대 남성의 성장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가문이라는 집단이 그에게 가한 죄벌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10)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식과 의미」, 『고소설연구』 8권, 한국고소설학회, 1999.
- 11) 조광국, 「고전소설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옥호봉심>, <쌍털옥소삼봉>, <성현공숙열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 12)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 9권,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3.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4.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연구』 21권, 2010.
장시광,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 연구」, 『온지논총』 35권, 2013.
- 13) 이선형, 「<쌍천기봉>·<이씨세대록>의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224쪽.

과 그에 따른 고통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죄벌(罪罰)의 양상

1) 불고이취(不告而娶)한 죄-부의 강력한 체벌

이몽창은 전부인인 상씨의 상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소공의 집에 들렀다가 소월혜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래서 소공에게 소월혜와 혼인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소월혜는 “팔찌 한 짝이 있어 이 팔찌 한 짝 가진 이가 배필이라”(7권)며 그 팔찌 가진 자를 기다렸다가 혼인하겠다고 한다. 이몽창은 후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유부인(조모)의 침소에서 호광에서 보았던 팔찌를 발견하게 되어 소공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구혼을 한다. 팔찌를 맞춰본 소월혜는 어쩔 수없이 혼인을 허락한다. 이몽창은 혼인의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부친 이관성이 아들이 소월혜와 정혼한 사실을 모르고 형부시랑 순희의 딸과의 혼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몽창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소월혜와 정혼한 사실을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다만 상사병에 걸려 앓아눕는다. 그리고 숙부 이연성에게 소월혜를 만나 구혼한 사실을 고백한다.

시랑이 추연 뒤왈, 소달이 치스는 전두를 헤아리고 소시로 친근히미업서 잉혈을 머뜨러시니 소달의 뜻이 소시 귀이호물 본 후 발 색른 자의게 아일가 호야 건도로 성네호여시나 부모 명 업스물 구이호야 친히미 업스미오, 즉금 소달의 병은 순가 혼스로 심네 어즈러워 나미니 만일 순가 혼스를 물니면 호릴쇼이다. 소뉘 알 그러면 순가 혼스를 물니면 형당기 고히여야 될지라.

싱이 덕왕, 불가흐이다 덕인이 즈뫓 네의를 둥히 너기시니 엇디 소달의 스경
을 불뵈리잇고 스싱이 관수흐니 쇼달이 병의 죽디 아니리니 원흐느니 숙부
 는 아야와 형당기 고터 므르소서. 쇼뵈 응낙고 닐오디 네 몰도 올흐니 흙구하
 여 잇다가 조용히 죠모기 고흐야 도히 되게 흐리라 시랑이 비샤흐더라.(권7)

이몽창 자신도 ‘불고이취’한 것을 ‘권도(權道)’라 여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먼저 정혼했을 뿐이고, 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아버지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그렇다고 소월혜를 두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순가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또한 추호도 없다. 예법보다 애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애정을 밀고나갈 자신감도 없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혼인을 할 수도 없기에 결국 ‘상사병’을 자처하여 앓아눕기에 이른다. 정신적 고통이 병으로 발현된 것이다.

숙부 이연성은 이몽창이 상사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죽을 지경에 다다르자, 소월혜의 존재를 이관성에게 알리며 순씨와의 혼사를 거두도록 간청한다. 이에 평소부터 이몽창의 호색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이관성은 이 사실을 알고 이몽창을 잡아들여 크게 꾸짖는다. 아들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승상이 노목이 습널흐야 부체로 난간을 처 니로디, 네 어려서부터 성현서를 넘어 즈뫓 네의를 알너든 몬져 늬의 규등을 엿보며 규년의 드러가 타문
녀즈를 꺾박하고 돌지는 부모를 물너이고 군명을 붓즈와 외방의 가 미너 성
식을 톱흐야 불고이취흐고 셋지는 나의 즈식으로 환즈의 족속과 결혼흐니
 니시 청덕을 네 다 썩러버리고 존당과 부모를 욱먹이니 너긋튼 즈식을 두어
부절업고 네 썩 아들이 이시니 후스는 근

(291)심타 아널 거시니 쾌히 죽어 니시 가문을 흐리오디 몰나. 너 츠마마

빅두의 너를 치지 못하든 동인의 보는 벼를 앓기미라. 이 쏘 나의 약하미오
 불을 아스든 너 츄미 너갓흔 더러운 거슬 다시 보디 아니려 하미라. 네 혼
 미인을 인하여 아버를 드시 못 보고 당하 죽음이 되려하노요, 사랑이 츄언을
 듯고 이욕이 물을 아니트가 고하디 쇼즈의 죄는 티산갓습거니와 야애 평일
 즈익하시던 정을 싱각하야 관던을 쓰쇼셔 승상이 디로 왈 네 죄를 네 스스로
 아라 죽을 거시 올호니 다시 놀을 아비라 하노요 너 즈식은 이러디 아니리니
 어느 입으로 관던 두 지 나노요 인하여 치기를 직촉하미 미마다 고출하니
 사랑이 드시 물을 아니 하고 공순이 못더라.(권7)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몽창의 죄는 ‘남의 규중 여자를 엿보
 아 꺾박’하고 ‘부명(父命)을 거역하여 불고이취’하였으며 ‘환자의 족속과
 혼인하여 가문을 더럽힌’ 것이다. 조부 이현과 부친 이관성으로 이어지는
 이부(李部)에서는 ‘조혼(早婚)소빙’과 ‘재취(再娶)’를 금지하였다. 우선
 ‘조혼소빙’의 금지는 과도한 애정을 절제하기 위해서이고, ‘재취’를 금지한
 이유는 조부 이현의 모친 진부인이 첩 홍랑에 의해 버림받아 도로 유리하
 게 되면서 수난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호색함’을
 경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몽창이 혼인 전에 남의 규중
 여자를 엿본 것은 이부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예기>에서 ‘혼례’는 “장차 두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
 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라 되어 있다.¹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혼사는 반드시 가문의 어
 른들에 의해 중매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부모
 에게 알리지 않고 맘에 드는 여자를 선택하여 혼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불고이취를 했으니 이씨 가문에 대한 반항의 행위로 간

14) “婚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이상옥 역저, 『昏義』, 『禮記』

주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혼사는 자신의 가문을 번성하게 해줄 좋은 배우자를 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환자의 죽속’과 정혼했으니 가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이몽창은 이부의 금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혹독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우선 자식의 항렬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심한 육체적 형벌을 받게 된다. 이미 상사병으로 기운이 허약한데다가 40여 대의 태장을 더 당하니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이관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대를 더 내리쳐 몽창을 혼절하게 한다. 이관성은 엄정한 빛과 열렬한 노기를 가득히 하며 쓰러진 몽창을 향해 사정없이 백여 장을 더 내리친다. “노색(怒色)을 비복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권7) 이관성이었음을 미루어본다면, 그가 얼마나 아들에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아들을 살점이 떨어져나가 성혈이 흘러내려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곤장을 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문밖으로 쫓아낸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도 형씨에게 집착하느라 부친이 불러도 가지 않다가 심한 장책을 당한다. 그러나 <쌍천기봉>에서의 체벌은 이보다 강도가 더 높다. 잘생긴 얼굴이 심한 매질로 인해 귀형이 되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이다. 이관성이 자식에게 얼마나 지나치게 형벌을 가했는지는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시량(숙부) 등이 몽창의 상태를 보고 놀라 관성에게 항의하자, 관성은 “몽창의 죄를 헤아리건대 죽음이 죽하데 부자의 정으로 살아 내쳤으니 엇지 죽으리오.”(권7)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이에 지나치게 냉정하고 과도한 관성을 보며 경시량은 “(관성이) 이렇게 모질고 괴독하뇨. 몽창의 상처와 그 정신을 보건대 엇지 회생하리오.”(권7)라 탄식한다. 유부인(조모)도 관성을 불러 꾸짖으나, 관성은 야단쳐 내쳤을 뿐이라고 말한

다. 이에 유부인이 슬퍼하면서 “몽창은 노모의 편애하는 손자이어는 엇지 관성이 이렇듯이 하나요.”(권7)라 하며 원망한다. 이관성은 모친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했음을 확고하게 피력한다.

이몽창의 병이 위독하여 나아질 기미가 없자 숙부 연성도 관성에게 찾아가 몽창을 심하게 때린 것을 비난한다. 이에 이관성은 약간 체벌하였을 뿐이니 과도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연성을 꾸짖으며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주변의 질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관성은 몽창을 심하게 체벌한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아 한다. 이연성도 직접 혼사를 주도하려다가 부친 이현에게 걸려 매를 맞은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몽창처럼 심하게 체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관성은 몽창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체벌을 가한다.

주목할 바는 이몽창의 모친인 정부인 또한 이관성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숙부 이연성이 몽창에게만 엄격한 관성에 대한 불만을 정부인에게 표출하자 “몽창의 행사 고금의 없는 음흉필부이니 이 일이 마침 숨기지 못해 일어난 것이지 누구를 탓 하리오.”(권7)하면서 몽창 스스로가 초래한 일임을 강조한다. 이관성은 자식이 죽어가는 데도 보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몽창이 “옥 같았던 얼굴이 귀형이 되고, 온 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권7)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자, 마침내 침과 약을 써서 아들을 회생시킨다. 이몽창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상처가 아물어 막대를 잡고 일어나 관성에게 찾아가 용서를 빈다. 그러나 이관성은 몽창을 보지 않고 나가버린다. 정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풍교를 더럽혔다며 보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관성과 정부인은 몽창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면서 냉정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이몽창은 형틀에 묶여 매를 맞으며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이 난 후 자존감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펼치지 못하고 절혼(絶

婚)하지는 서간을 소부에 보낸다.¹⁵⁾ 서간을 받은 소월혜는 어이없어 하며 채단을 돌려보낸다. 이후 이관성은 소월혜가 환자의 딸이 아니라 소처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처사에게 사죄한다. 그리고 나서 이몽창을 향해 “불초자를 책함은 남의 규내에 들어가서이지 내 입으로 절혼하라하지는 아니했더니 이 반드시 아버를 역정하게 함이라”(권7)며 화를 낸다. 아버지의 엄한 질책 때문에 절혼서를 보낸 것인데 또 절혼서를 보냈다고 질책을 하니, 몽창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무기력해진다. 부자간의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체벌은 몽창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어 소월혜에게 절혼서를 보내는 등 무책임한 남자가 되게 했다.

이관성은 모친 유부인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몽창을 다시 받아들인다.¹⁶⁾ 그리고 이몽창을 “실성지인”이라 부르며 앞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몽창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소월혜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신체가 훼손될 정도로 심한 체벌을 당해야 했다. 불고이취로 인해 받은 육체적 체벌은 자유애정의지의 속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아내를 믿지 못한 죄—가문에서의 소외와 고립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는 ‘정숙한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부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유씨삼대록>의 유세필은 박소저와 혼인을 하지만 박소저의 냉담한 태도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러던

15) 절혼하는 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쌍천의 기봉함을 믿어 부모께 고하지 않고 취하였더니 지금 부모의 책이 엄하시니 내 사정으로 그대를 거두지 못할 것이 오 내 이러할 줄 짐작하고 정을 머무르지 않았으니 혼서를 도로 보내고 좋은 옥낭을 만나 일생을 누리라”(권7)

16) “내 차마 생전에 너를 보지 않고 언어상통을 하지 않으려 하였더니 존당 명이 사함을 이르시고 내 마음이 약한 고로 금일부터 너를 자식 향렬에 넣겠다.”(권7)

중 박소저는 운남포정사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도적을 만나는 등의 수난을 겪고 시택에 돌아오는데, 유세필은 돌아온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팔뚝에 있는 앵혈을 보고 오해를 푼다.¹⁷⁾ 이렇게 ‘정숙한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 이야기는 오해와 의심의 해결을 통해 여성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남편의 신의(信義)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쌍천기봉>에서 이몽창도 ‘정숙한 아내’인 소월혜를 의심하여 부부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의심을 당하는 소월혜뿐만 아니라, 의심을 하는 이몽창도 가족으로부터 큰 시련을 당한다. 특히 주목할 바는, 시비 옥난의 계교에 의해 실질적 고난을 겪게 되는 소월혜보다도 아내를 의심하는 이몽창의 서사가 더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몽창은 모친 정부인의 외가에 갔다가 정부의 시녀인 옥난과 친합한 후 이부로 데려온다. 그러나 이몽창은 소월혜를 취한 후로는 옥난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옥난은 이몽창을 기다렸다가 만나 자신을 다시 받아줄 것을 간청한다. 이에 이몽창은 “숙녀를 만났으니 너 같은 것은 지나가는 인연이라. 날로 거리까지 말고 좋은 서방 맞아 지내라”(권8)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화가 난 옥난은 이것이 다 소월혜 때문이라며 월혜의 음식에 독약을 넣기도 하고 월혜의 시비 난매와 손을 잡고 이운문(전처 상씨의 아들)을 죽인 다음, 월혜의 짓으로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옥난은 이몽창이 지나가자 “우리 소씨 모질더라. 공자를 스스로 죽이고 거짓으로 기절하여 서러워하니 누가 아니 고지 드리리오.”(권8)라며 거짓으로 탄식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이 말을 듣고도 소월혜를 의심하지 않는

17) 임치균은 <유씨삼대록>의 유세필과 박소저의 부부갈등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자기에게 박정한 것이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다.¹⁸⁾

그런데 이렇게 견고할 줄 알았던 소월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서서히 오해와 의심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몽창은 소월혜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월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월혜가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루머를 듣고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만다. 이몽창이 이렇게 의심하게 된 데에는 소월혜의 태도도 한몫했다. 왜냐하면 이몽창이 평소 넘치는 애정으로 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월혜는 지나칠 정도로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외간 남자와 정을 나누는 소월혜의 서간이 발견 되었고, 이몽창은 이에 자신에게 냉담했던 이유가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게다가 옥난의 모해로 인해 외간 남자와 사통했다는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옥난과 난매는 개면단을 먹고 각각 소월혜의 얼굴과 위생의 얼굴로 변하여 이몽창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거짓으로 희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몽창은 자신의 눈앞에서 소월혜와 외간 남자가 서로 수작하는 광경이 펼쳐지자 아내의 부정을 확신한다.¹⁹⁾

이몽창은 소월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래서 형 이몽현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해보지만, 형은 위로논커녕 현숙한 아내를 믿지 못하는 동생을 도리어 꾸짖는다.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이관성은 “육자 중시 가문에 육을 먹이고 숙녀의 평생을 마치게 하려 하는구나.”(권8)며 또 다시 패악한 행동으로 가문을 더럽히려 한다고 크게 나무란다. 그리고 동생을 제대로 누우치게 하지 못한 죄를 들어 이몽현을 잡아다가 태장 삼십 대를 친다. 이관성은 소처사의 딸인 소월혜에게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이몽창의

18) “어떤 악인이 소씨와 은원이 있어 소씨를 모함하느냐”(권8)

19) “소씨 비록 현숙하나 혹 이런 일을 할 동 어이 알리오.”(권8)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관성은 몽창에게 “너 가중(家中)에 정둔 자 누구냐”(권8)며 추궁하지만, 이몽창은 이미 옥난과의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월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을 두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래도 부친이 믿어주지 않자,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숙부 이연성에게 찾아가지만 그도 역시 “엇진 고로 정실을 음일한 곳으로 의심하고 핍박하며 무죄한 동기로서 중책을 얻어 주니 무슨 도리냐”(권8)라 하며 나무랄 뿐이다. 이렇게 믿었던 숙부까지도 자신을 비난하자 이몽창은 더욱더 소월혜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

소월혜는 폐식(廢食)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폐식하는 이유도 위생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이에 참다못한 이관성은 “몽창이 엇지 점점 이다지 이상하게 되어 가느냐?”(권8)하면서 끌고 나와 곤장을 친다. 이관성은 “요첩을 감초와 아버이를 속이고 애매한 아내를 의심하여 질욕하기를 이렇듯이 하느냐?”(권8)며 성혈이 정전에 낭자할 정도로 매질을 한다. 이에 이몽창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럴수록 관성은 “불초자는 살아 부질없도다.”(권8)라 하며 십여 대를 더 맹타하여 몽창을 쓰러트린다. 숙부 이연성마저도 몽창에게 “숙질 지의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옥난은 또 위생으로 변하여 이몽창의 방으로 들어가 “몽창의 머리를 베고, 소씨 옥인을 앗아 고향에 돌아가 화락하리라”(권8) 하며 협박한다. 이에 이몽창이 간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숙부 등이 모두 자신의 말만 믿지 않는다면 억울해한다.

옥난이 여러 계교를 통해 소월혜를 모함해도 성과가 없자, 이제 외부와 결탁하여 소월혜를 몰아내려 한다. 그래서 도어사 조훈에게 뇌물을 주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하여 소월혜를 이부에서 출거 시킨다. 소월혜는 이부를 떠나기 전 시비 운아에게 밀서를 주어 아들 성문이 성장하면 보여

주라고 전한다. 그 서간에는 “네 모(母)의 환난은 운액의 기구함과 네 부친의 호색 소탈하신 연고라.”(권9)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몽창은 우연히 그 편지의 내용을 듣게 되고 그제야 옥난이 이 모든 일을 꾸짖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몽창은 자신이 오해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소월혜에게 용서를 빈다. 이관성은 이를 보고 “몽창은 가히 풍류화사로다. 가련한 소씨 호방한 가부 만난 연고로 연연약질이 고초를 겪으며 원억하도다.”(권9)라 하며 탄식한다.

이렇게 옥난의 계교는 이몽창이 ‘혼암불명(昏暗不明)’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몽창은 소월혜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부친에게 강력한 체벌을 당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군자에게는 신의(信義)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총명을 가리는 개면단과 같은 요약에도 속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옥난의 계교에 전부 속아 넘어갔다. 소월혜가 얘기했듯이 이몽창은 “호색 소탈한 남자”이기 때문에 간인의 계교를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⁰⁾ 이는 부친 이관성이 몽창과 다르게 아내에게 신의가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관성은 아내 정몽홍이 여환의 계교로 모함을 당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느리 소월혜에게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²¹⁾ 그만큼 완벽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관성처럼 신의가 있어야

20) 서술자는 “몽창은 소탈한 남자라 엇지 간인의 계교 이 같음을 알리오”(권8)라 평하고 있다.

21) 정몽홍이 여씨의 모함으로 진부인으로부터 쫓겨날 때, 시부인 이현과 남편 관성은 현숙한 정몽홍을 생각하여 여씨의 계교를 믿지 않지만 모친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정몽홍을 출거시킨다. 여씨는 한 도사로부터 여의개용단을 구해 정몽홍으로 변장하고 도봉잠으로 관성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관성은 이를 짐작하고 속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는데, 이 환술에 넘어가지 않는 관성을 통해 사람에 대한 현안, 아내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한다.

그러나 이몽창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혼암불명’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데에 억울한 면이 있다. 이미 시비 옥난을 만난 것도 혼인 이전이었으며, 혼인 후에는 옥난과의 관계도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인 전 시비와 정을 통하는 것이 당시 사대부 남성으로서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몽창은 혼인한 후부터 소월혜에게 오로지 일편단심의 애정을 보였다. 그래서 소월혜가 자신의 아들 윤문을 죽였다는 옥난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녔다. 그러나 소월혜는 이러한 몽창에게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로 대할 뿐이었다. 휘질루머가 퍼졌을 때에도 소월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침묵만 고수한다.²²⁾ 이렇게 소월혜가 불통하는 데에다가 가짜 아내가 눈앞에서 악행을 자행하니 이몽창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심의 대기는 흑독했다. 강력한 체벌도 문제지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게다가 가장 믿었던 숙부마저도 등을 돌려 버린다. 물론 남편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옥난의 모함을 받아야 했던 소월혜가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씨 가문의 무한한 신뢰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면, 이몽창은 아내를 의심한 것 때문에 더욱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했다. 부친 이관성과 부인 소월혜는 이몽창이 옥난과 정을 통했던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몽창이 호색한 사람이라 정을 통한 여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이렇게 아내를 믿지

22) 서정민은 소설속에 나타나는 언행에 있어 절제와 제한의 극단적 표출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침묵은 그 자체 발언보다 침묵에 도덕적 우위를 두는 규범적 통념 속에서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비례의 혐의를 더하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연구』22,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11. 26쪽)

못한 죄를 짓게 되는 데에는 이념에 집착하여 과도할 만큼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아내와 아들을 불신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몽창이 아내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의 행실이 아니라 아내의 침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편벽된 애정을 드러낸 죄—아내의 신체·성적 폭력

대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많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 폭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²³⁾ 아내를 발로 무수히 구타하거나, 아내 앞에서 칼을 들어 여러 집기들을 산산이 조각내거나, 아내를 죽도록 팬 뒤 한겨울에 거적에 맡아 문밖에 버리거나 하는 등 폭력 행위의 주체는 대개가 남성들이다.²⁴⁾ 그러나 <쌍천기봉>에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도 그려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월혜가 도로 유리하다가 행적이 묘연하게 되자, 이몽창은 ‘재취’를 강요받는다. 부호인 국구 조겸은 사위를 구하던 중 이몽창이 소씨를 잃고 울적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고 딸 조계염과의 혼인을 주선한다. 이에 부친 이관성이 허락하지 않자 큰딸 조황후의 힘을 빌려 혼사를 밀어붙인다. 이몽창은 소월혜를 두고 재취할 뜻이 없다며 강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이관

23) 한길연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적 실상을 ‘신체 폭력담’, ‘성적 폭력담’, ‘언어 폭력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남편 폭력담에는 여성의 몸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남성 폭력의 다층적인 양태들을 조망하게 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위안처를 찾아보게 하는가 하면, 현실의 이념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전략적 기제를 들춰보게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망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2010)

24) 한길연, 위의 책, 77쪽.

성은 황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조제염과의 혼인을 허락하고
만다.

신비 가비아온 장소로 이의 축하의 안즈니, 상셰(몽창) 흠신하여 잠간 쌍
성을 흘니미 이 본디 조미경이 아니로디 사름의 울열이 목하의 스몯는 고로
도시의 위인이 쇠험하고 가슴 가온디 니검을 품은 줄 아지 못하리오 크게
놀나 헤아리디 너 처음 명흔 뜻이 도국구의 일이 비록 무상하나 그 쫓은 무
죄하니 만일 순후흔 위인일진디 부부의 의를 곳지 마려 하엿더니 츄인이 니
러툃 흉녀하니 갓가이 못홀 거시라 늣지 쳐세하미 엇지 화근을 갓가이 하리
오……이찌 도시 상셰의 텃일갓툃 위풍을 보고 크게 깃거 즈기 팔즈 조흐물
스스로 치하하디니 의외예 싱의 괴식이 낙~하여 동치 아니물 보고 정홍이
이지러지고 의심하는 뜻이 밍동하여 일경이나 안즈 싱의 동지를 슬피디 숨
쇼리도 엽시 누어시니 도시 크게 고이히 너겨 흑반편인가 의심하여 입속의
셔 꾸즈즈디 숙뵁불변도 잇도다. 쥬안을 누으라 권도 아니코 혼즈 즈니 저런
인스불성도 이실스 하니 싱이 임의 다 듯고 크게 우이 너기디 요동치 아니터
니. 도시 춤지 못하여 꺾히 노힌 츄그르슬 엽쳐 바리니 싱의 누은 디로 흘너
드러가니, 도시 쇼리하여 널오디 군즈야 물 드러가느이다. 싱이 잠간 몸을
두로혀 물너논어 금금으로 몸을 김초고 다시 동치 아니니 도시 크게 이상이
너기고 진짓 숙뵁불변만 너겨 첩편을 드러 더지며 널오디 야애 일녀를 위하
여 어디가 병인을 어더오시뇨 내 일죽 드러니 그디 풍신직해 일세의 영걸이
라 하더니 이제 얼굴은 사름갓트디 엇지 저러툃 용널하여 잠잘 줄만 알고
부부중정은 모르느뇨.(권10)

신혼 첫날 밤, 조제염은 이몽창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러나 이몽창은 강제적 혼인에 대한 반발로 제염을 거부한다. 게다가 조
씨가 가슴에 이검(利劍)을 품은 듯 살기등등함을 보고 일신을 걱정하며
더욱더 멀리하려 한다. 이몽창은 숙부 이연성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

가나 이연성은 오히려 너무 박대하지 말라며 잘 지낼 것을 당부한다. 이몽창이 숙부도 청씨를 박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연성은 청씨는 고금을 기율여 방불할 이 없는 박색이었지만 조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박색이 아니고서는 부인인 만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응수한다.

조제염은 신혼 첫날밤부터 자기에게 옆에 누우라 권하지도 않고 혼자 누워 잠만 자는 이몽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잠시 반편(半偏)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차 그릇을 몽창에게 던져 자기 존재를 알려보지만, 몽창은 조제염의 폭력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다. 조제염은 자기를 무시하는 이몽창에게 분노한다. 게다가 조황후의 동생으로 이부에서도 자신을 ‘주인’이라 칭할 만큼 부와 명예가 이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시종일관 냉대하는 이몽창에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버린다.²⁵⁾ 그래서 조제염은 이몽창에게 첩편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는 등 패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이몽창은 조제염의 신체·언어적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래서 모친 정부인에게 하소연해보지만, 오히려 정부인은 “너의 행동이 갈수록 광패하도다. 다시 이런 말을 말나”(권10)며 꾸짖기만 할 뿐이다. 이관성도 내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몽창에게 아내를 박대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부 사람들은 조씨의 패악한 행동보다 몽창의 편벽된 애정을 더 문제 삼는다.

이몽창은 숙부 이연성에게 찾아가 조제염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²⁶⁾ 이에 이연성이 관성에게 부탁하니 “비례지언”이라 타하

25) “국구 조검의 장녀는 황후 되고 차녀 조제염이 십오 세라. 천자 악공으로 권세 일세를 기율이니 집이 대궐과 일양이요. 재물이 피같으니 제염 일생 부귀로 타인을 업신 여기더라” <권10>

26) “소서, 조녀의 손에 죽을 소이다.”<권10>

면서도²⁷⁾ 몽창을 서당에서 지내게 한다. 이날부터 이몽창은 조제염의 침소에 가지 않고 오로지 소월혜만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지낸다.

그러나 조제염을 거부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조제염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몽창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 첫 번째는 성적 폭력이다. 이몽창은 조제염과 잘 지내라는 부친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염의 침소에 다시 간다. 그때 조제염이 강제로 동침하려 달려들자 놀라 의관을 수습하고 도망친다. 한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침을 당하기도 한다. 이몽창은 최상서의 생일에 가서 취해 돌아와 임혜란(후처)을 불러 옷을 벗기라 하고 잠이 든다. 이를 엿본 조제염은 임혜란을 내쫓고 대신 이몽창 옆에 누워 동침한다. 이몽창이 깨어보니 조제염이 손을 주무르고 있으나 방이 어두워 조제염인지 임혜란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그 후 조제염은 임신을 한다. 이몽창은 조제염의 침소에 가지도 않았고 앵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였다고 하니 어이없어 한다. 그리고 반드시 외간 남자와 사통했을 것이라 여긴다. 이에 이관성은 또 다시 아내를 의심하는 몽창에게 “너 엇지 정실을 괴이한 말로 의심하는가.”(권13)하면서 꾸짖는다. 조제염의 일방적인 동침은 이몽창의 입장에서 보면 ‘강간’에 해당될 수 있다. 조제염이 이몽창의 성적 권리를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빼앗은 것이다.

두 번째는 특권을 이용한 폭력이다. 조제염은 자신의 계교가 성공하지 못하자 소월혜 소생인 이영문을 죽여 그 죄를 소월혜에게 뒤집어씌운다. 그리고 언니인 조황후에게 “소씨라는 적국이 들어와 가부가 나를 박대한다.”(권13)며 소월혜뿐만 아니라 이몽창에게도 죄를 주라고 부탁한다. 이에 황제는 이몽창을 금의옥에 가두고 소월혜를 본가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린다. 대개 처처갈등이 있을 때 악인의 악행이 주로 다른 여성에게

27) “나의 평생 뜻이 비례지언 불문을 삼가더니 금일 형제 이르기를 불행이 하도다.”<권10>

만 자행되는 것과는 달리, 조제염은 이몽창에게도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한다. 이전에 옥난이 도어사를 시켜 황제에게 소월혜에게만 죄를 주라고 요청하게 한 것과 상반된다. 이는 황실의 특권을 지닌 조제염의 가문이 이부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남성인 이몽창도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몽창이 조제염에게 신체·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성적폭력까지 당하고 심지어 나라의 명에 의해 원찬을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은 “도시 몽창의 편벽하기로 일어난 일”(13권)이라며 그를 나무라기만 한다.²⁸⁾ 물론 조제염은 악행이 밝혀져 그 죄상에 따라 징치된다.²⁹⁾ 그러나 조제염의 악행이 발각되기까지 이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몽창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의 모든 문제가 이몽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몽창이 조제염으로부터 겪은 폭력에 대해서는 다들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몽창이 조제염에게 냉담한 데에는 강압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조제염의 성품이 좋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월혜를 향한 일편단심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월혜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남편으로서 신의(信義)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몽창은 한번 결심하고 다짐한 마음은 절대 변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사가 불투명했지만 이몽창의 마음속에 조강지처는 오직 소월혜뿐이었다. 그러나 이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몽창의 사랑을 편벽된 애정으로 몰아간다.³⁰⁾ 이렇게 소월혜

28) 이부의 이현은 유부인과 주초란을 처첩으로 두었는데, 애정을 고르게 하기 위해 유부인 침실에는 십여 일씩 들어가고 주초란에게는 사오일씩 들어간다.

29) 조제염의 악행은 조씨 때문에 죽은 조씨 시비 경교가 황제의 꿈에 나타나 그간 일들을 고하면서 전모가 밝혀진다. 이에 조씨는 황제의 명으로 쌍둥이 아들과 함께 멀리 원찬을 간다.

30) 물론 이몽창도 소월혜로부터 ‘호색’하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는다. 그러나 실수를 한

를 향한 일편단심의 애정은 개인과 가문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의해 짓밟혀지며 죄벌로 형상화됨을 보여준다.

3. 죄벌(罪罰)로 인한 고통의 이면

1) 애정과 호색에 대한 상반된 인식

이몽창의 세 가지 죄벌은 결국 호색함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훗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유년시절에 했던 행동이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부에서 철저히 배척하고 금기시하는 조항들은 모두 호색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조혼소빙(早婚少聘)’을 금지하고 혼인을 해도 스물 살이 될 때까지 각거를 명하는 등의 조항들은 과도한 애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는 호색함을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니, 애정까지도 매도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부에서 대표적인 호색한은 이몽창의 숙부 이연성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이 이부에서 가장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몽창은 어린 시절 모친 정부인이 여환의 작해로 인해 이부를 떠나자 부친 이관성에 의해 길러졌다. 그러나 부친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무서운 나머지 몽창은 부친보다 숙부 이연성에게 의지한다.³¹⁾ 그래서 이몽창은 자연스레 이연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것도 결혼 전 일이었다고 혼사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물론 이몽창도 소월체가 냉정하게 대하자 밥상을 뒤엎는 등의 소소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조제염의 폭력처럼 그 강도가 큰 것도 아니었다.

31) “이적의 니부이셔 몽창이 야~를 써난 후 혼났 괴물이 되야 아모의게도 아니 가고 듀야 연성을 밋들고 보치니 연성이 역시 글을 폐하고 밤낮 몽창을 안으며 업으며 돈 니~ 옷등이 몬져 써러지더라”(권3)

처음엔 이연성이나 몽창이나 모두 호색한이 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연성은 희롱을 즐기고 비복들을 죽을 정도로 친 후에 그치는 등 성격이 과격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뜻은 절대 고치지 않는 등 고집도 셌다. 마찬가지로 이몽창도 숙부의 영향을 받아 고집이 세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다.³²⁾ 이몽창은 숙부를 통해 활 쏘는 법을 배우다가 마침 시녀 소연이 실수를 하자 활로 눈을 쏘아 멀게 한다. 이를 알고 이관성이 꾸짖자, 몽창은 숙부가 가르쳐서 배웠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이몽창은 연성의 행동을 하나하나 본받으며 닮아간다.

이연성은 13세 때부터 시비들과 정을 통했다. 그리고 매번 몽창에게 “서씨 옥진 같은 처자를 얻어 동락하리라”(권5)라 말했다. 이를 본 부친 이현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색욕이 있음을 불쾌하게 여겼다. 이연성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미인에 대한 집착했다. 하루는 유모 춘화에게 딸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그 침소에 나아갔다가 흉악한 얼굴에 놀라 도망 나오는데, 이때 이몽창도 엿보다가 얼굴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며 허겁지겁 도망친다. 이관성이 그 광경을 보며 묻자 이몽창이 “차마 보지 못할 귀신을 보와 놀랐나이다.”(권5)라고 말한다. 미인을 얻으려다가 도리어 흉한 귀형을 만나 놀리는 일화를 보면 이연성과 몽창 모두 배우자의 미색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연성은 나이 이십이 되기 전에 청길의 딸과 결혼하지만 청씨의 얼굴이 “천하에 둘도 없는 박색”(권5)인 것을 알고 실망한다. 원래 비위가 약해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열이 올라 자못 심하게 앓는 ‘결증’이 있던 연성은 청씨를 보자마자 바로 비위를 정치 못하고 토하면서 알아 늙는다. 이를 본 이현은 “여자의 색을 취함은 나의 뜻이 아니니, 청씨와 화

32) “숙부의 영향을 받아 고집이 세고 성품이 과도하며 기상이 활연하여 거리끼는 일이 없이”(권5)

락하게 지내라.”(권5), “‘재취’ 두 자를 입 밖에 내면 부자 지의를 끊겠다.”(권5)고 엄포를 놓지만, 연성은 끝내 청씨를 외면한다. 이에 청씨는 연성의 얼굴을 상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된다.

청씨가 죽자 이연성은 이번에는 꼭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재취하겠다고 결심한다. 하루는 이몽창과 함께 몽창의 외가댁에 갔다가 정혜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린다. 이연성은 정혜아를 배필로 삼으려는 결심을 하고 몽창을 통해 정혜아에게 편지를 전한다. 그리고 정혜아에게 구혼하는데 뜻밖에도 정문한은 연성이 탕자라 생각해 거절한다. 화가 난 이연성은 몽창에게 “타문 남자의 눈에 뵈고 그 글을 받아보고 엇지 다른 가문의 가려 하냐요. 죽어 났이라도 이연성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권5)라는 편지를 정부에 전하게 한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인은 편지를 전달한 몽창을 불러 꾸짖는다. 그리고 다음날 이현은 정부에 찾아가 정문한이 보는 앞에서 이연성을 태장하며 사죄한다. 이에 정문한은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한다. 이관성은 몽창이 비례의 서간을 전하여 연성을 그릇된 곳에 빠지게 했다고 결박하여 태장한다. 이몽창이 다리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자 연성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미친 아자비 말 듣다가 너조차 낙미지액(落眉之厄)을 만나도다.”(권5)며 미안해한다.

이연성과 정혜아의 혼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몽창의 결혼관을 알 수 있다. 이몽창은 이연성이 정혜아에게 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리 숙부의 일은 큰 과실이 아닌 듯하고 처음 서찰은 표매의 행사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요, 현우(賢愚)를 알려준 것이지 색만 취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글은 숙부 같은 영걸을 나무라 혼인을 허치 않아 숙부 분함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다 인리의 옳으신 일이다”(권5)라 하며 조목조목 예를 들며 이연성의 행동을 두둔한다. 이몽창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색만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됬됨이를 당사자가 먼저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조제염이 청씨처럼 박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대해줘야 한다고 이연성이 충고할 때, 이몽창이 반발했던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몽창은 아무리 예쁘다 하여도 성품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몽창은 미인에게만 집착하는 이연성과 달리, 배우자의 됬됨이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비를 함부로 대하고, 박색인 아내를 박대하고, 혼인 전 규중 여자를 희롱한 것만 본다면 이연성은 ‘호색한’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배우고 따르는 이몽창도 ‘호색한’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연성은 정혜아를 만나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여자에게 절대 한 눈을 팔지 않으며 오로지 정혜아에게만 애정을 쏟는 순정적인 남자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연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부의 구성원 중 불화하는 부부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이몽창이 소월혜를 의심하자 ‘숙질지의’를 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색에 취해있거나 불화하는 사위나 조카들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 훈계하고 조정하면서 이부의 모든 부부가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³³⁾

그러나 이관성을 주축으로 한 이부에서 이연성과 몽창의 ‘애정’은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자유 애정 의지는 불고이취했다는 이유로, 소월혜에 대한 일편단심은 편벽된 애정으로 왜곡된다. 인간의 순수한 본능에서 비롯된 애정의 발현이 호색함으로 변질되는 데에는 가문의 집단 의식이 작동

33) 여동생 위염이 주색을 좋아하는 초왕과 결혼하여 폭력에 시달릴 때에 관성 마자도 “위염의 모든 것 지아비에게 달렸으니 어찌하리오”(권4)하면서 방관하는데, 연성만이 홀로 초왕을 비판한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후세를 잇는 데 목표를 둔 거사(巨事)이지 애정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결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문이라는 집단의식 앞에서 애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단죄를 받는다. 그리고 자기를 상실한 후에야 비로소 집단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활달하며 순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호색’함에만 집착하여 이몽창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몽창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였지만, 결국 그 애정은 집단의식에 의해 부정당하며 ‘호색한’에 머물게 하였다.³⁴⁾

2) 이념에 의해 괴물로 전락하는 남성

소월혜는 이부에 속하지 않은 낯선 이, 즉 타자이다. 그녀는 이부에 정착하기 위해 지배 권력에 순응하면서 타자성을 극복하려 한다. 타자는 주체가 만들어 놓은 종교, 교육, 문명을 통해 주체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³⁵⁾ 소월혜는 이부에 적응하기 위해 더 강한 이념으로 무장했고, 그리하여 집단의 주체인 시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냉랭한 태도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소월혜는 몽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몽창이 자신에게 애정을 보인다 한들 받아들일 마음이 추호도 없다.

34) 장시광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19명의 호방형 인물을 추출하였는데, 그중에 이연성과 이몽창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호방형 인물이 주축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남성이라는 점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가 용인하는 한도에서 예법을 지키지 않는 인물을 창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몽창의 경우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였다가 가문으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음을 미루어본다면, 가문이 그에게 보호막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장시광, 앞의 논문, 『은지논총』 35권, 2013, 135쪽)

35) 김여령, 「주체와 타자 사이」, 『여성 타자의 은유』, 2012, 44쪽.

이몽창이 침소에 이르러 손을 잡고 다가가려하면 언제나 안색을 자약하게 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앉아있을 뿐이다.³⁶⁾ 소월혜는 이몽창이 관복을 벗기라 하면, 시비 홍아를 불러 대신 하게 할 만큼³⁷⁾ 몽창을 섬기는 것을 비첩이나 하는 일처럼 수치스럽게 여긴다. 게다가 동침하는 것까지 거부한다. 이에 이몽창은 “소씨 괴물이 한 층이 더하여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완하지도 않고 경사에 먼저 가니 여자로서는 이런 괴독한 것이 없다”(권7)고 투정부러보지만, 이내 소씨에게 다시 찾아가 자신의 애정을 구걸한다.

이몽창은 자신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소씨에게 서운해 하면서도 ‘부부의 정’을 포기하지 않는다.³⁸⁾ “부부의 중정은 인력으로 못하는 것”(12권)이라며 소씨의 무릎을 베고 쓰러지기도 하고 손만 잡고 자겠다고 애원해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소월혜는 붉은 피가 입에서 쏟아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아예 이몽창과 평생 동락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여자를 직접 찾아 남편의 배필로 주선하기까지 한다. 이몽창이 이를 거절하니, 월혜는 더욱더 단호하고 냉정하게 몽창을 대한다. 이에 이몽창은 “쇠 마음, 돌 간장이라.”(12권)투정하면서도 할 수 없이 임혜란을 받아들인다. 이몽창은 원하지 않은 후처를 맞이하면 서까지 소월혜의 마음에 들려고 애쓴다.

소월혜가 지나치게 남편을 거부하자 모친이 이를 걱정하여 남편에게 온순해질 것을 당부하나³⁹⁾ 소월혜는 “문후(몽창)를 대한 즉 죽음이 영화

36) “내 비록 불초하나 여자의 온순하지 않음을 용납지 아니 하거늘, 그대 엇지 이렇듯 하나.”(권8)

37) “첩이 비록 미비하나 군의시첩이 아니라 엇지 관복을 벗겨 소임을 하리오.”(권8)

38) “그대 비록 생을 구척같이 여기나 내 정을 엇지 금하리오”(12권)

39) “이량이 비록 전일 그림이 있는 듯 여자 됴에 온순함을 힘쓸 것이거늘 엇지 이렇듯 한요”(12권)

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이다.”(12권)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남편과 화합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이몽창이 혼인 전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소월혜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몽창이 더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월혜도 자신과 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혼인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혼인은 아니었다. 혼인이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만큼 서로 화합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월혜는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역할까지도 거부하려 한다. 단지 며느리,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혼인을 한만큼 최소한 화합하기 위해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월혜는 전혀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탕한 남편을 만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음을 탄식할 뿐이다. 이몽창이 잘못했다고 사정해도 애정을 계속 시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소월혜의 차가운 시선뿐이다. 혼인과정에서 보였던 남편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과도한 신념에 사로잡힌 듯하다.

조선시대 이상적인 여성이란 성적 욕망과 자기표현을 절제할 만큼 자기 규제에 강해야 한다. 그리고 준엄하고 과묵하며 단정해야 한다.⁴⁰⁾ 이렇게 자기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소월혜는 그 명분을 이몽창의 행동에서 찾았다. 어찌되었건 이몽창이 비례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상 그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몽창의 적극적인 애정표현은 정숙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결국 소월혜의 과잉된 이념이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이몽창의 애정을 짓밟는 결과가 되었다. 소월혜가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40)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집, 2011.

는 이몽창의 애정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몽창은 이념적으로 전사화된 아버지에게 저항하다 이부 구성원들에게 외면 받으며 주변으로 밀려나고 만다. 반면, 완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소월혜는 가문구성원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는다. 소월혜는 집단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집단에 편입하고자 했지만, 이몽창은 오히려 자신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며 ‘괴물’로 전락한다.⁴¹⁾ 서술자가 이몽창의 이름을 귀신과 흡사한 몽달에서 따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⁴²⁾ 즉, 이몽창은 집단에 의해 ‘괴물’, ‘실성지인’, ‘호색한’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다. 소월혜의 과도한 이념은 남성 지배 질서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다시 이몽창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4. 결론

이몽창이 노력하는 것만큼 소월혜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부부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이제 부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부모와 자식간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이몽창의 성격도 호방함에서 엄정함으로 변모하면서 가문의 수장으로 우뚝 선다. 대군을 이끌고 적진에 나아가 장청의 난을 진압하기도 하고, 오랑캐에게 잡힌 정통황제를 구출하는 등 큰 공을 세우며 영웅호걸적인 면모도 보인다. 후편인 <이씨세대록>에서

41) “주체는 말끔한 언어와 이성의 질서로 정돈하고 파악하여 경계 지을 수 없는 영역을 타자화하고 괴물의 모습을 입힌다.” 김애령, 앞의 책, 41쪽.

42) 관성은 몽달이라는 귀신을 만나 물리치고 집에 돌아와 몽창을 보고 너는 이 귀신과 흡사하다고 놀린다. “네 이름은 몽창이오 자는 백달이니 곳 저 몽달이라 함이 어떠하뇨”(10권)하니 좌우가 대소한다.

는 아들들이 아내와 불화하거나 문란한 행위를 하면 아들을 혼계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등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과도한 이념으로 무장한 아버지와 아내로 인해 이몽창은 불고이취한 죄로, 아내를 믿지 못한 죄로, 편벽된 애정을 드러낸 죄로 강력한 체벌과 부부불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자유 애정 의지가 매도되면서 괴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본성과 의지를 포기 혹은 박탈당한 후에야 가문의 중심부에 설 수 있었다. 그가 가문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고통 받고 버려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성장은 통념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가 굴절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의 집단 의식에 의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유 애정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이몽창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매력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완월회맹연>의 정인광이 가부장제 하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숨긴 채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반된다. 이몽창은 호색한으로 불리어 졌지만 아들 이백문처럼 폭력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숙부 이연성처럼 미인에게만 오로지 집착하지도 않았다. 형인 이몽현처럼 이념에 전도되어 융통성없이 사고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쌍천기봉>에서 이몽창은 거리낄 것 없는 감정에 충실한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체재 앞에서 유연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서술자는 부부갈등을 팽팽하게 이끌어가면서도 승자를 가리지는 않았다. 이는 이몽창의 호색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사랑 또한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쌍천기봉>의 작가는 남성주인공이 자유 의지와 당대 이념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고뇌하고 갈등하는지를 이몽창의 ‘죄벌’과 그로 인한 고통의 양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쌍천기봉> 장서각 18권 18책.

이상옥 역저, 『昏義』, 『禮記』,

김기동, 『<쌍천기봉>의 해제』, 『현대문학』 18권, 현대문학사, 1972.

김애령, 『주체와 타자 사이』, 『여성 타자의 은유』, 2012. 1~176쪽.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213쪽.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18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3, 163~190쪽.

김진세, 『<쌍천기봉>연구』, 『관악어문연구』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6, 31~58쪽.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집, 2010, 53~86쪽.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연구』 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5~29쪽.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1~210쪽.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이선형, 『<쌍천기봉> · <이씨세대록>의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224쪽.

장시광, 『<쌍천기봉> 연작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1~112쪽.

_____,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 9권,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3, 153~192쪽.

_____, 『대하소설의 여성반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4, 1~202쪽.

_____, 『<쌍천기봉>의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연구』21권, 2010, 187~232쪽.

_____,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 연구』, 『은지논총』 35권, 2013, 93~137쪽.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식과 의미』, 『고소설연구』 8권, 한국고소설학회, 1999, 67~101쪽.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

연구』 29집, 2010. 153~185쪽.

조광국, 『고전소설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옥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55~83쪽.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2010, 255~289쪽.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9, 1~228쪽.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69~121쪽.

_____,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집, 2011, 321~355쪽.

_____,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집, 2013, 27~64쪽.

ABSTRACT

The Other Side of the Punishment for a Crime of Men and
Their Pain under Patriarchal System
- With focus on Lee, Mong Chan in "Ssangcheongibong"

Koo, Sun-jung

In this paper, the punishment by family and its consequent pain with focus on Lee, Mong Chan in "Ssangcheongibong". Lee, Mong Chan suffered corporal punishment by his father and was isolated and alienated from his family for the sin of doubting his wife. For the sin of rejecting his wife, we suffered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from his wife.

However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there was a hidden warning: 'a will for free love of individuals cannot be accepted', as the other side of the punishment for a crime. The presentation of love arising from the pure instinct of humans is distorted as sensuality and is punished by the group ritual. Lee, Mong Chan became a monster without adapting himself to his own group. He became the heart of family after having his free instinct renounced or deprived.

However, he never renounced his will for free love despite his pain under the group ritual, a family, which makes him an attractive man. Lee, Mong Chang had free soul faithful to unrestrained emotion and was flexible against a system. The author of Ssangcheongibong demonstrated the agony and conflict of male protagonist amid a clash between free will and the ideology of his time through the punishment for a crime of Lee, Mong Chang and the aspect of his pain.

Key Words patriarchy, men, pain, Bulgoichi, corporal punishment, isolation, alienation, violence, love, sensuality, subject, monster.

논문투고일 : 2014. 5. 1
심사완료일 : 2014. 5. 30
게재확정일 : 2014. 6. 2